

일본어 탁음의 비음성의 변천 과정*

- 15-18세기의 일본어 전사 자료를 이용하여 -

진남택(麗澤大學)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3.2. 일본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
| 2. 분석 대상 | 탁음의 음주 표기의 분석 |
| 3. 일본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탁음의 | 3.2.1. 가행 |
| 음주 표기 및 변천 과정 | 3.2.2. 다행 |
| 3.1. 일본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 3.2.3. 바행 |
| 탁음의 음주 표기법 | 3.2.4. 자행 |
| | 4. 맺음말 |

<Abstract>

A Diachronic Study of Japanese Dakuon

-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n Source-Materials in the 15-18th Centuries -

Nam-Taek Ji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rocess of the sound changes of Japanese consonants (Dakuons) in the analysis of the transcriptions of Korean Source-Materials (i.e. Japanese textbooks for Korean and the records of travel in Japan) written in the 15-18th centuries with the Korean writing system. Especially these records of travel in Japan are meaningful in that the process of change of Dakuon is shown in detail.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In the 15th century, all Dakuons /g d z b/ had nasality.
- 2) The nasality of /z/ and /b/ disappeared in the 16th century.
- 3) The nasality of /d/ disappeared in the late 17th century.

* Keywords: Japanese, Korean source-materials, Change of nasality of Dakuon(濁音)

* 이 논문은 梅田博之·陳南澤의 공동연구 「15世紀から19世紀における韓國語と日本語の音の變遷について—朝鮮資料を用いて」의 연구 결과의 일부이다.

1. 들어가기

본고는 일본어를 한글(또는 한자)로 기록한 문헌¹⁾에 나타나는 음주(音注)를 이용하여 15-18세기 일본어의 탁음(濁音)²⁾의 비음성³⁾의 변천 과정을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의의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일본어 학습서의 음주 외에도 15-18세기의 일본 기행 자료에 나타나는 일본 지명의 음주를 분석하여 탁음의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현대 일본어의 경우 동북 방언처럼 탁음의 비음성이 현저한 방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탁음에 비음성이 남아있지 않거나 ㄱ행 자음에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15-18세기의 일본어 전사 자료의 탁음에 대한 음주에는 무로마치(室町)·에도(江戸)시대에 있어서의 탁음의 비음성과 그 변천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탁음이 비음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청탁의 음운적 대립은 「비비음(非鼻音):비음(鼻音)」의 대립이었으나 에도(江戸)시대에 탁음의 비음성이 소실되어 감에 따라 「무성:유성」의 대립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⁴⁾.

2. 분석 대상

본고에서는 사역원의 일본어 학습서(왜학서) 및 조선통신사 등의 일본기행록에 나타나는 일본 지명의 한글(또는 한자) 음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어 학습서는 일본어에 대한 음주가 나타나는 다음의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1) 본고에서는 이를 일본어 전사 자료라고 부르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조선자료(朝鮮資料)라고 부르고 있다.
- 2) 탁음이란 カ・ザ・ダ・バ행음을 뜻하며, 현대 동경 방언에서는 대체로 [g]/[ŋ] [z] [d] [b]에 대응하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음성을 동반하는 탁음을 비탁음(鼻濁音)이라고 부른다.
- 3) 비탁음에 나타나는 비음성의 성질에 관해서는 앞의 모음을 비모음화시킨다는 주장과 탁음의 시작부분에 비음성이 조금 있었다는 주장 및 자음 자체가 비음화한 [g d b z] 이었다는 주장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문헌 자료라는 한계상 비음성의 성질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고 비탁음에 비음적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비음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4) 15-18세기의 청탁음의 음운대립의 성격에 관해서 진남택(2003b)은 ㄱ행과 ㄷ행의 청음이 일본어 전사 자료에서 대부분 한글의 평음으로 음주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ㄱ행은 [g]~[ŋ]의 음역을, ㄷ행은 [d]~[d̥]의 음역을 갖는 소리였을 것으로 추정된 후 탁음의 비음성 및 현대방언을 고려하여 청탁음의 대립이 비음성의 대립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본고에서는 진남택(2003b)에서 간단히 다루었던 탁음의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다만 일본어 전사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일본어가 어떤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현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자세한 논의는 진남택(2003b) 참조.

- (1) 이로파(弘治 5年 伊路波) : 1492 간행
 (2) 첩해신어(捷解新語) : 원간본(原刊本) 1676 간행
 개수본(改修本) 1748 간행
 중간개수본(重刊改修本) 1781 간행
 (3) 왜어유해(倭語類解) : 1783-1789(추정)
 (4) 방언집석(方言集釋) : 1778 사본

다음은 15-18세기의 일본 기행 자료의 목록이다⁵⁾. 이하 문헌 앞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지명의 출전을 표시한다.

- A 老松堂日本行錄 (1420年) : 宋希境(1376-1446) 著.
 B 海東諸國記 (1471年) : 申叔舟 (1417-1475) 著.
 Ca 東槎日記 (1617年) : 朴梓 著.
 Cb 扶桑錄 (1617年) : 李石問 著.
 D 看羊錄 (1656年) : 姜沆(1567-1618) 著.
 Ea 扶桑日錄 · Eb 聞見別錄 (1655年) : 南龍翼 著.
 F 海槎錄 (1719年) : 申維翰 著.
 G 扶桑錄 (1719年) : 金滄 著.
 H 癸未隨槎錄 (1764年) : 작자미상.
 J 東槎日記 (1763年) : 趙曦 著.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일본 지명의 음주는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통신사의 일원이 기록하였기에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의 음성을 자기 나름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⁶⁾과 기록된 시기가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같은 지명이 몇 세기에 걸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어의 변천 과정과 시기를 고찰하는데 가치를 지닌다.

가나(假名)로 기록된 일본 국내 문헌은 탁음의 음성적인 변화가 가나문자 자체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기록한 크리스천 자료는 청탁음의 표기에 관해서는 문자 전사(transliteration)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탁음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일본어 전사

5) 자료에 대한 설명은 陳南澤(2002, 2003a) 참조.

6) 같은 문헌 안에 동일한 가나문자에 대응하는 다양한 한글(한자) 음주 표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러한 음주가 가나를 한글로 그대로 옮긴 문자전사(transliteration)가 아니라 당시의 음성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일본어의 「エ」는 「여/예/연」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7) 청음의 ㄱ행 자음은 c/q로, 비음성이 현저했던 ㄱ행의 탁음은 g로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悪口는 accô로 공 vôyaqe로 作業는 sagueô로 기록되어 있다.

자료는 한글(또는 한자)을 이용하여 일본어의 음성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국내 문헌이나 크리스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당시의 일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3. 일본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탁음의 음주 표기 및 변천 과정

현대 일본어에서는 방언에 따라 탁음의 비음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동경 방언의 경우 *カ행*에 비음성이 일부 남아 있는데 비해 동북(東北) 방언은 탁음의 비음성이 현저한 것으로 유명하다. 역사적으로 일본어의 탁음에 비음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음운현상·현대방언·외국자료⁸⁾등의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탁음의 변천의 양상과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 점이 남아 있다. 3장에서는 일본어 학습서 및 일본 기행 자료의 음주의 분석을 통해 탁음의 음성적인 양상 및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첩해신어를 중심으로 한 일본어 학습서를 이용한 탁음의 변천에 관한 연구⁹⁾가 있으나, 규범에 덜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본 기행 자료」를 함께 분석하면 비탁음의 변천 과정과 그 시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 연구 중 오토모신이치(大友信一 1956)는 「첩해신어 원간본」의 음주의 분석을 통해 탁음에 나타나는 비음성의 소실의 순서가 「*ヰ行* > *バ行* > *ㄷ행* > *カ行*」의 순이었다고 추정하였다. 趙燏熙(2001:248-249)도 첩해신어의 음주의 비율을 분석하여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ヰ行*·*バ行*」의 경우는 거의 동시기에 비음성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핫도리시로(服部四郎 1957:344-345)는 비탁음의 변천에 있어서 1) 음성적 성질(파열음·파찰음·마찰음) 2) 음운 체계(대립하는 무성음의 유무)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즉 파찰음이었던 *ヰ행* 자음은 15세기에는 마찰음이 되면서 비음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バ행* 자음은 대응하는 청음 *ハ행*이 마찰음으로 바뀐에 따라 비음 [m]과의 구별을 확실히 하기 위해 *カ행* 및 *ㄷ행*보다 이른 시기에 비음성을 상실하였다고 추정하였다.

8) 日本語史의 연구에 중요시되는 자료인 Rodriguez(1561-1633)의 『일본대문전』(1604-8 長崎版)에는 중세에 있어서의 탁음의 비음적 요소에 관해 「D Dz G 앞에 나타나는 모든 모음은 항상 절반 정도의 비음을 동반하여 발음된다(필자역)」는 기술이 나온다. 그러나 비음화의 부호는 당시의 예수회 선교사의 사이에서 이용되었던 일본어 청탁음의 로마자 표기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청탁음은 유무성을 나타내는 알파벳(q/c:g t:d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점은 크리스천 자료의 표기가 청탁음의 표기에서는 음성적이기보다는 가나에 대응하는 문자전사(transliteration)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9) 大友信一(1956, 1957), 森田武(1957), Cho Seung-Bog(1970a, 1970b), 趙燏熙(2001) 참조.

3.1. 일본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탁음의 음주 표기법

일본어 전사 자료 중 일본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탁음의 음주 표기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 |
|--------------------------------------|-------|
| (1) 앞음절의 말음에 비음 「ㄹ / ㄴ / ㅇ」을 첨가하는 방법 | 예) 혼도 |
| (2) 음절두음을 「비음+평음」으로 표기하는 방법 | 예) 요또 |
| (3) 평음만으로 표기하는 방법 | 예) 요도 |
| (4) ㄱ행음 「ㄱ」로 표기하는 방법 | 예) 선수 |

이러한 표기법의 성격에 관해서는 진남택(2003b)에서 논하였는데, 양 언어의 음운 체계를 고려하면 비어두에 나타나는 (1)과 (2)의 표기법은 비음적 요소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1)과 (2)의 표기법이 같은 소리를 나타낸 것인지 비음적 요소에 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일본어 학습서인 이로파(伊路波)(1492)에는 비어두의 「ず・ど・で」가 모두 앞음절에 비음을 덧붙이는 (1)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せず 선수」는 유성음 [z]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ㄱ」로 표기하면서 직전의 음절에 비음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예는 15세기 일본어 탁음에 비음적 요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간주되었다¹⁰⁾. 첩해신어, 왜어유해, 방언집석에는 탁음의 표기에 (1), (2), (3), (4)의 표기법이 모두 나타난다. 단 자음에 따라 비음성이 나타나는 비율에 차이가 있다. 일본 기행 자료에는 (2)의 표기법은 나타나지 않고, (4)의 표기법도 15세기의 문헌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3.2. 일본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탁음의 음주 표기의 분석

3.2.에서는 일본 기행 자료의 지명의 음주와 함께 첩해신어 원간본·개수본·중간본과 방언집석의 탁음 표기의 빈도¹¹⁾의 분석을 통해 탁음의 변천 과정을 고찰한다.

3.2.1. ㄱ행

일본 기행 자료에 나타나는 ㄱ행의 음주를 개관하면, 지명이 속한 지역과 문헌

10) 浜田敦(1952:26) 참조.

11) 일본어 학습서의 탁음 음주의 통계표는 趙燮熙(2001)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재편집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같음.

의 시기(15-18세기)에 관계없이 비음적 요소가 대부분의 음주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명이 한자로 기록된 경우에는 고노로꾸로(河野六郎 1968) 및 『17세기국어사전』에 의거하여 괄호 안에 당시의 한글을 넣어 음가를 표시하고 비음적 요소가 표기에 나타나지 않는 예에는 밑줄을 쳐서 표시한다.

1) 「ガ」의 음주

가는 대부분 「ㅇ-가」로 음주되어 있는데 『G 扶桑錄』(1719)과 『J 東槎日記』(1763)에서는 「가」만으로 기록된 음주도 나타난다.

せがわ 瀬川	A26 盛加臥店(성가와)	
あがみ 安神	Bb37 仰可未(앙가미)	
さが 嵯峨	Bb79 雙介(상개)	
やまが 山鹿	Bf7 也望加知(야망가디)	
かまがり 蒲刈 廣島	A33 可忘家利(가망가리)	Ca 아망가리
	Ea48 가망가리	Eb95 可亡加理(가망가리)
	G18 가망가리	H16 가망가리
	J168 加亡加理(가망가리)	倭類) 가마따리
ながと 長門 山口	D43 낭가도	G12 낭가도구니
	J160 良可刀(랑가도)	
	捷-原/改) 낭가도	捷-重) 나까도
おほがき 大垣 岐阜	Ea58 오운가기	Eb114 五雄家其(오웅가기)
	<u>G37 오우가기</u>	H35 오웅가기
	<u>J186 五牛加其(오우가기)</u>	倭類) 오우따기
かけがは 掛川 静岡	Ea63 가경가와	Eb124 加京加臥(가경가와)
	<u>G50 가계가와</u>	J197 加京可臥(가경가와)
	倭類) 가계따와	
するが 駿河 静岡	D6 수룽가와	Eb127 數農家(수농가)
	G53 스룽가노구니	H48 스룽가슈
	捷-原) 수룽가	捷-改) 스룽가
	捷-重) 스루따	
かながは 神奈川	Ea69 강랑가와	Eb135 加郎加臥(가랑가와)
	G65 가낭가와	
	H57 가낭가와	<u>J211 加那加臥(가나가와)</u>
さがみ 相模 神奈川	D9 상가미	G61 상가마노
	J205 床可米(상가미)	
	捷-原/改) 상가미	捷-重) 사따미
しながは 品川 東京	Eb136 施郎加臥(시랑가와)	G67 시낭가와
	H57 시낭가와	<u>J212 時羅可臥(시라가와)</u>

2) 「ギ」의 음주

ギ는 예가 적지만 대부분 비음적 요소가 표기되어 있다.

うむぎ 卯麥	Bb81 古茂應只(고무응기) ¹²⁾
むぎや 麥谷	Be11 無應只也(무응기야)
やなぎだ 柳田	<u>Bd8 也那而多(야나시다)</u> ¹³⁾
かたぎぬ 肩衣	Cb31 可當其屨(가당기루)
すぎ 杉	F3 勝枝(승기)
すぎやき 杉杉煮	F4 勝枝治枝(승기야기)

3) 「グ」의 음주

グ의 경우도 예는 적지만 모두 비음적 요소가 나타난다.

ほんぐ 本宮	Bd13 戶應口(호응구)	
やまぐち 山口	Bf2 也望仇知(야망구디)	
しなのぐに 信濃 長野	G56 시나농구니	
かわぐち 河口 近畿	H25 가왕구지 倭類) 가와우지	J176 可往口之(가왕구지)

4) 「ゲ」의 음주

ゲ의 예는 「일본 기행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5) 「ゴ」의 음주

ゴ의 경우도 대부분 「ㅇ-고」로 표기되어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

さご 佐護	Ba7 雙古(상고)	
ちくご 筑後 福岡	D51 지궁구 捷-原) 지궁오	捷-改/重) 지궁고
びんご 備後 廣島	D40 방고 捷-原) 핑고 捷-重) <뻬ㅇ >고 ¹⁴⁾	G21 밍고니구니 捷-改) 밍고 倭類) 뻬오
ひご 肥後(舊國名) 熊本	D55 잉고 捷-改) 빙고	捷-原) 핑고 捷-重) 핑고
ぶんご 豊後 大分	D53 붕고 捷-改) 뉘고	捷-原) <뻬ㅇ >오 捷-重) <뻬ㅇ >고

12) 해동제국기의 只는 「기」에 대응한다.

13) やなぎだ(柳田)의 ぎ를 「而 시」로 음주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14) <뻬ㅇ>의 <>는 「뻬ㅇ」가 하나의 음절임을 나타낸다.

なごや 名護屋 愛知 Ea59 낭고야 Eb116 浪古野(랑고야)
 G40 낭고야 H37 낭고야
 J188 郎古野(랑고야) 倭類) 나옌야

6) 일본 기행 자료 및 일본어 학습서의 가행

일본 기행 자료에 나타나는 「가행」의 음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에서 비음적 요소가 음주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J 東槎日記』(1763)와 『H 癸未隨槎錄』(1764)은 같은 시기의 조선통신사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비음적 요소의 표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이 지역방언의 차이인지 사회방언의 차이인지 아니면 문체의 차이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18세기 후반에는 가행에도 비음성이 약해진 예가 많아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1> 일본 기행 자료에 나타나는 가행의 음주

	A 1420 老松堂日 本行錄	B 1471 海東譜國記	Ca 1617 扶桑錄	Cb 1617 東槎日記	D 1656 看羊錄	Ea 1655 扶桑錄	Eb 1655 聞見別錄	F 1719 海槎錄	G 1719 扶桑錄	H 1764 癸未隨槎錄	J 1763 東槎日記
가	ㅇ-가	ㅇ-가	ㅇ-가	--	ㅇ-가	ㅁ-가 ㄴ-가	ㅇ-가		ㅇ-가/가	ㅇ-가	ㅇ-가/가
기	--	ㅇ-기	--	ㅇ-기	--	--	--	ㅇ-기	--	--	--
구	--	ㅇ-구	--	--	--	--	--	--	ㅇ-구	ㅇ-구	ㅇ-구
게	--	--	--	--	--	--	--	--	--	--	--
고	--	ㅇ-고	--	--	ㅇ-고	ㅇ-고	ㅇ-고		ㅇ-고	ㅇ-고	ㅇ-고

일본어 학습서에서도 일본 기행 자료와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다음의 <표2>는 일본어 학습서의 가행의 음주의 통계이다. 첩해신어 원간본·개수본·중간본에 나타나는 어두의 「ㅇ」는 대부분 「御」를 음주한 것이다.

<표 2> 일본어 학습서의 가행의 음주

		語頭			非語頭		
		ㅇ-ㄱ	ㅇ	ㄱ	ㅇ-ㄱ	ㅇ	ㄱ
가	捷-原	-	-	6	318	-	7
	捷-改	-	-	5	299	-	16
	捷-重	-	-	2	116	90	8
	方言集釋	-	-	1	243	-	52
기	捷-原	-	-	5	112	-	-
	捷-改	-	-	15	70	-	2
	捷-重	-	16	1	16	38	1
	方言集釋	-	-	2	77	-	17
구	捷-原	-	-	2	93	-	6
	捷-改	-	-	2	69	-	14
	捷-重	-	-	2	6	59	11
	方言集釋	-	-	-	45	-	31

		語頭			非語頭		
		o ㄱ	o1	ㄱ	o ㄱ	o1	ㄱ
ゲ	捷-原	-	-	19	43	-	1
	捷-改	-	-	11	57	-	6
	捷-重	-	-	7	11	28	1
	方言集釋	-	-	1	37	-	15
ゴ	捷-原	-	447	5	74	11	2
	捷-改	-	568	14	67	-	21
	捷-重	-	465	15	89	-	2
	方言集釋	-	-	9	57	-	48

3.2.2. 닻행

1) 「ㄱ」의 음주

ㄱ은 『Ea扶桑日錄(1655)·Eb聞見別錄(1655)』까지의 문헌에서는 지명에 따라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만 『G 扶桑錄』(1719)부터는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4음절어의 어말에 오는 ㄱ(예: やなぎだ·ふちえだ)에는 이른 시기의 문헌에도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음절의 위치가 비음성의 소멸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あしださき	Be5 阿神多沙只(아신다사기)	
にだのうら 仁村浦	Bb52 尼多老(니다로)	
やなぎだ 柳田	Bd8 也那而多(야나시다)	
わだの 和田浦	Bb80 完多老(완다로)	
くだまつ 下松 山口	A34 軍多灣(군다만)	
ひだ 飛驒(舊國名) 岐阜	D16 희다	
	捷-原) 피다노구니	捷-改/重) 히다노구니
ふちえだ 藤枝 静岡	Ea64 훈지예다	Eb126 訓之藝多(훈지예다)
	G52 후지예다	H47 후지예다
	J199 後之與多(후지여다)	倭類) 후시예다
よしだ 吉田 愛知	Ea61 요신다	Eb120 要申多(요신다)
	G45 요시다	H41 요시다
	J192 要時多(요시다)	倭類) 요시파
をだはら 小田原 神奈川	Ea67 온다와라	Eb132 濫多臥羅(온다와라)
	G62 오다와라	H53 오다와라

2) 「ㄷ」의 음주

ㄷ¹⁵⁾도 닻처럼 『Eb 聞見別錄』(1655)이후의 문헌에서는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

15) ㄷ와 ㄷ, ㄷ와 ㄷ를 요쓰가나(四つ假名)라고 부르며 17세기 말부터는 현대어처럼 구별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 않는다. 또한 「あはち・たちま」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D 看羊録』(1656)의 ち의 음주가 다른 점이 눈길을 끈다.

おほぢろも 大千尋藻	Bb19 蘊知老毛(온디로모)	
こぢろも 小千尋藻	Bb20 昆知老(곤디로)	
あはち 淡路 兵庫	<u>D45 아와지</u>	
	捷-原/改) 아완지	捷-重) 아와지
たちま 但馬 兵庫	D30 단지마	
	捷-原/改) 다시마	捷-重) 다시마
ふちえだ 藤枝 静岡	Ea64 훈지예다	Eb126 訓之藝多(훈지예다)
	<u>G52 후지예다</u>	<u>H47 후지예다</u>
	<u>J199 後之與多(후지여다)</u>	倭類) 후시예다
ふぢさは 藤澤 神奈川	Ea68 훈지사와	Eb134 熏止沙臥(훈지사와)
	<u>G64 후지사와</u>	<u>H55 후지사와</u>
	<u>J209 厚之沙臥(후지사와)</u>	倭類) 후시사와

3) 「ヅ」의 음주

ヅ는 『D 看羊録』(1656)에서는 비음성이 있는 표기와 없는 표기가 모두 나타나는데 『G 扶桑録』(1719)부터는 비음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 「F13 みづ 関注」(1719)의 예를 고려하면 일부 어휘에서는 아직 비음적 요소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うなづら 女連	Bb47 于那豆羅(우나두라)	
みづさき 水崎	Bb66 敏沙只(민사기)	
むしやうづ 武生水	Bc5 無山都(무산도)	
みづ 水	F13 関注(민주)	
いづも 出雲 島根	D33 신주무	捷-原) 인주모
	捷-改) 인즈모	捷-重) 이즈모
むろづみ 室積 山口	A13 無隠頭美島(무은두미)	H8 무로즈미
	<u>J163 無老즈米(무로즈미)</u>	倭類) 무로즈미
にしつ(づ) 西津 山口	<u>G15 이시즈</u>	
いづみ 和泉 大阪	<u>G26 이주미구니</u>	<u>J152 伊米米(이미미)</u>
	捷-原) 인주미	捷-改) 인즈미
	捷-重) 이즈미	倭類) 이즈미
いづ 伊豆 静岡	<u>D7 이주</u>	<u>G59 이즈노구니</u>
	捷-原) 인주노구니	捷-改) 인즈노구니
	捷-重) 이즈노구니	
かづさ 上總 千葉	D12 간주사	捷-原) 간주사
	捷-改) 간즈사	捷-重) 가즈사

4) 「テ」의 음주

テ는 3예가 나타나는데 모두 비음적 요소가 음주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F15 ふで(筆) 候代」의 예는 한국어의 모음 「ㅣ」의 전설단모음화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예가 없어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いでよし 射手吉	<u>Bd5</u> 伊除而時(이제시시)	
では 出羽 山形・秋田	D21 데와	捷-重) 데와
ふで 筆	<u>F15</u> 候代(후디)	

5) 「ド」의 음주

ド의 경우도 『Eb 聞見別錄』(1655)까지는 비음적 요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대마도의 지명인 「にしどまりうら 西泊浦」의 경우에는 18세기 후반의 문헌인 『J 東槎日記』(1763)에도 비음적 요소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대마도의 탁음에 비음이 약하게 남아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참고로 어두의 「だう (>ドウ) Cb33 道袍」를 「老」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 비음의 비음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본어의 탁음에 비음성이 있던 점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だうぶく 道袍	Cb33 老服古(로복고)	
かりやど 假宿	<u>Bb65</u> 可里也徒(가리야도)	
よど 淀城 京都	A28 要溫梁(요온도) ¹⁶⁾	Ea54 요온도
	Eb107 要隱刀(요온도)	<u>G29</u> 요도
	<u>H28</u> 요도우라	<u>J179</u> 大刀(대도)
	倭類) 요보	
にしどまりうら 西泊浦	A2 利新梁灣(리신도만)	Bb2 尼神都麻里(니신도마리)
	Eb78 尾申道萬里(미신도만리)	
	<u>G4</u> 니시도마리우라	倭類) 니시도마리
	<u>H3</u> 이시도마리	J153 以伸刀馬里(이신도마리)
はいどまり 南風泊	Bb12 和因都麻理(화인도마리)	
	<u>H10</u> 하이도마리	<u>J161</u> 我伊刀馬理(아이도마리)
とうどり 新居? 静岡?	J194 刀雲刀里(도운도리)	
えど 江戸	Ea70 연도	Eb137 延刀(연도)
	<u>G68</u> 예도	<u>H58</u> 예도
	<u>J213</u> 义刀(예도)	捷-原) 연도/연도
	捷-改) 예도	倭類) 예보
さど 佐渡 新潟	D27 산도	捷-原/改) 산도
	捷-重) 사도	

16) 이 문헌에서 梁은 혼독음인 「도」로 추정된다. 이하 같음.

6) 일본 기행 자료 및 일본어 학습서의 ㄷ행

이상을 정리하면 『Eb 聞見別錄』(1655)과 『F 海槎錄』(1719)을 경계로 ㄷ행의 비음성이 표기에 나타나지 않아 1655년 이후에 비음성이 소실되었고 추정된다. 단, 18世紀後半의 『J東槎日記』(1763)에는 대마도의 지명에 비음성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대마도방언에는 ㄷ행에 비탁음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대마도방언에 관한 오카노노부코(岡野信子 1983)¹⁷⁾의 기술과 부합한다.

<표 3> 일본 기행 자료에 나타나는 ㄷ행의 음주

	A 1420 老松堂日 本行録	B 1471 海東諸国 記	Ca 1617 扶桑録	Cb 1617 東槎日記	D 1656 看羊録	Ea 1655 扶桑録	Eb 1655 聞見別録	F 1719 海槎錄	G 1719 扶桑録	H 1764 癸未隨 槎錄	J 1763 東槎日記
ㄷ	ㄹ-다	다/ㄹ-다	--	--	다	다/ㄹ-다	다/ㄹ-다	--	다	다	다
ㄷ	--	ㄹ-지	--	--	ㄹ-지/지	ㄹ-지	ㄹ-지	--	지	지	지
ㄷ	ㄹ-두/	두/ㄹ-도	--	--	ㄹ-주/주	--	--	ㄹ-주	즈/주	즈	즈
ㄷ		계?			대	--	--	터	--	--	--
ㄷ	ㄹ-도	도/ㄹ-도	--	노	ㄹ-도	ㄹ-도	ㄹ-도	--	도/두	도	도/ㄹ-도

또한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첩해신어 원간본과 개수본의 「ㄷ행」의 음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도 ㄷ행의 비음적 요소의 쇠퇴가 17세기 후반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일본어 학습서의 ㄷ행의 음주

		語頭			非語頭		
		ㄹ-ㄷ	ㄷ	ㄷ	ㄹ-ㄷ	ㄷ	ㄷ
ㄷ	捷-原	-	4	23	119	-	11
	捷-改	-	3	52	7	-	166
	捷-重	-	-	52	-	93	46
	方言集釋	-	-	4	60	-	53
ㄷ	捷-原	-	-	-	2	-	2
	捷-改	-	-	-	1	-	13
	捷-重	-	-	-	-	-	5
	方言集釋	-	-	12	30	-	71
ㄷ	捷-原	-	-	-	101	-	4
	捷-改	-	-	-	8	-	103
	捷-重	-	-	-	-	-	96
	方言集釋	-	-	1	42	-	138

17) 岡野信子(1983:152)는 壹岐·對馬島方言의 경우 老年層의 발음에서는 mu~gi(麥) ta-da(ただ) Fu~de(筆) i~do(井戸)처럼 비음이 약하게 들어간다고 하였다. 上村孝二(1983:8-16)도 壹岐·對馬島方言에 鼻濁音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語頭			非語頭		
		レ-ㄷ	ㄷ	ㄷ	レ-ㄷ	ㄷ	ㄷ
デ	捷-原	-	-	1	198	-	5
	捷-改	-	-	3	1	-	141
	捷-重	-	2	-	-	41	173
	方言集釋	-	-	1	34	-	37
ド	捷-原	-	8	23	429	-	13
	捷-改	-	19	14	22	3	276
	捷-重	-	12	18	-	31	229
	方言集釋	-	-	5	46	-	40

3.2.3. バ행

バ행은 15세기(A B)의 문헌에도 비음적 요소가 표기에 나타나지 않은 예가 있으며, 17세기 이후의 문헌에는 비음적 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15세기에 이미 바행의 비음성이 쇠퇴하기 시작해 17세기에는 거의 비음성이 없어졌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첩해신어 원간본에서도 바행 자음에는 비음적 요소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1) 「バ」의 음주

바는 3례밖에 나타나지 않고 게다가 「丹波」의 바는 비음성을 파악하는데 부적절하며 「くばら 久原」는 「波」로 음주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에는 청음 ㅂ였을 가능성도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くばら 久原	Bb54 仇波老(구파로)	
いなば 因幡 鳥取	D31 시나바	捷-原/改/重) 이나바
たんば 丹波 京都・兵庫	D28 담바	捷-原/改) 담바노구니
	捷-重) 단빠노구니	

2) 「ビ」의 음주

비어두의 「ビ」는 다음의 2례가 있는데 15세기의 문헌에는 비음적 요소가 나타난다.

やびつ 矢櫃	A1 也音非梁(야음비도)	Bb61 也音非道(야음비도)
ひび 日比 岡山?	A19 胸比	G18 히이
	H20 히비	J172 屎非(시비)

어두의 「ビ」는 첩해신어나 왜어유해등에서는 「ㅂ」와 같은 특수한 표기로도 나타나지만 일본 기행 자료에서는 「ㅂ」 혹은 「ㅃ」으로 나타난다.

びぜん 備前 岡山

D38 비전
捷-原/改) 비전
倭類) 때션G25 미전노구니
捷-重) 비션

3) 「ブ」의 음주

ブ는 이른 시기의 4례가 나타나는데 3례에서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こくぶ 國分	Bc3 古仇音夫(고구음부)
のぶ 濃部	Bb74 老夫(로부)
やまのぶ 山信	Bd7 也麻老夫(야마로부)
だうぶく 道袍	Cb33 老服古(로복고)

어두의 ブ는 일본 기행 자료에서는 「ㅍ」로 나타나며 같은 지명이 첩해신어에서는 「뿌」로 표기되어 있다.

ぶぜん 豊前 福岡・大分	D52 부전 捷-原/改) 뿌션	捷-重) 뿌션
ぶんご 豊後 大分	D53 붕고 捷-改) 뿌고	捷-原) <뿌ㅇ >오 捷-重) <뿌ㅇ >고

4) 「べ」의 음주

2례가 나타나는데 둘 다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あやべ 綾部	Bf6 阿也非知(아야비디)	
かすかべ 粕壁 埼玉	Ea71 강승기비	Eb139 加什加非(가십가비)

5) 「ボ」의 음주

ボ는 『Cb 扶桑録』(1617)까지의 문헌에 4례가 나타나는데 모두 비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くすぼ 久須保	Bb27 仇愁音夫(구수음부)
つぼ 坪	Be6 頭音甫(두음보)
をりえぼ 鳥帽	Cb35 烏里染浦(오리염포)
えぼし 鳥帽	Cb36 染浦是(염포시)

6) 일본 기행 자료 및 일본어 학습서의 バ行

이상, 바행의 음주를 살펴보았는데 바행의 변천에 대해서는 예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일본어 학습서를 함께 고려하면 15세기에 이미 바행 자음의

비음성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는 비음성이 거의 소실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ビ・ベ」의 비음성이 「ボ」보다 이른 시기에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표 5> 일본 기행 자료에 나타나는 바행의 음주

	A 1420 老松堂日 本行録	B 1471 海東諸国 記	Ca 1617 扶桑録	Cb 1617 東槎日記	D 1656 看羊録	Ea 1655 扶桑録	Eb 1655 聞見別録	F 1719 海槎録	G 1719 扶桑録	H 1764 癸未隨槎 録	J 1763 東槎日記
バ	--	파?	--	--	바	--	--	--	--	--	--
ビ	○ -비/ㅁ -비	ㅁ -비	--	--	語頭 비	--	--	--	語頭 미	비	비
ブ	--	ㅁ -부/부	--	보	語頭 부	--	--	--	--	--	--
ベ	--	비 ?	--	--	--	비 ?	비 ?	--	--	--	--
ボ	--	ㅁ -부/ㅁ -보	--	ㅁ -포	--	--	--	--	--	--	--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첩해신어 원간본에서도 바행의 비음적 요소는 그 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17세기 초에는 바행의 비음성이 거의 소실된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첩해신어 개수본과 중간본에서 바행의 비음 표기의 수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새로운 어휘가 늘어났기 때문이지 비음 표기가 아니던 것이 비음 표기로 바뀐 예는 없다고 한다(趙燮熙 2001:235).

<표 6> 일본어 학습서의 바행의 음주

		語頭				非語頭			
		ㅁ -비	ㅁ	비	ㅎ	ㅁ -비	ㅁ	비	ㅎ
バ	捷-原	-	9	19	-	18	9	129	-
	捷-改	-	13	17	-	-	5	99	-
	捷-重	-	10	12	-	-	6	67	-
	方言集釋	-	-	-	-	22	-	104	16
ビ	捷-原	-	-	4	-	6	1	38	-
	捷-改	-	-	5	-	-	-	50	-
	捷-重	-	2	6	-	-	2	34	-
	方言集釋	-	-	1	-	8	-	70	11
ブ	捷-原	-	13	7	-	2	6	34	-
	捷-改	-	31	3	-	-	12	47	-
	捷-重	-	29	2	-	-	17	35	-
	方言集釋	-	-	1	1	32	-	79	15

		語頭				非語頭			
		ㅁ -ㅂ	ㅃ	ㅅ	ㅇ	ㅁ -ㅂ	ㅃ	ㅅ	ㅇ
へ	捷-原	-	4	6	-	48	2	10	-
	捷-改	-	-	10	-	-	1	52	-
	捷-重	-	4	3	-	-	4	20	-
	方言集釋	-	-	1	-	19	-	34	-
ホ	捷-原	-	1	-	-	-	1	20	-
	捷-改	-	-	-	-	-	12	35	-
	捷-重	-	-	-	-	-	7	31	-
	方言集釋	-	-	9	-	4	-	27	7

참고로 후꾸시마구니미치(福島邦道 1995:188)는 16세기말의 크리스천 자료 중 하나인 「聖人・女聖人の輝き生涯」(1591년, 포르투갈어로 기록된 사본)에서는 바행자음의 앞에 오는 비음적 요소의 표기가 「方・ダ・ザ行」앞에 오는 것보다 적다고 하였다. 다음은 제시된 예의 일부이다.

tamauāba	給はば	nábiki	なびき
cf. zūba		ずんば (판본에서는 zumba)	

3.2.4. ザ행

『A老松堂日本行録』(1420)과 『B海東諸國記』(1471)에서는 ザ행에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만 『D看羊録』부터는 비음성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는 ザ행의 비음적 요소도 ㅂ행처럼 15세기에는 있었지만 17세기에는 소실되었음을 의미한다.

1) 「ザ」의 음주

15세기 문헌(A와 B)에서는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만 이후의 문헌에서는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ザ」의 음주에 「사」가 이용된 예가 눈에 띈다. 「風本浦」의 음주를 보면 『Eb 聞見別録』까지는 「사」로 표기되어 있고 『G扶桑録』부터는 「자」로 표기되어 있다.

あざも 淺藻	Bb40 安佐毛(안좌모)
あざも 淺藻??	Bb33 安沙毛(안사모)
かざもとうら 風本浦	A5 干沙毛梁(간사모도)
	Be14 間沙毛都于羅(간사모도우라)
	Eb84 加沙毛道(가사모도) G8 가자모도우라
	H7 가자모도 J157 加自馬刀(가자마도)
	倭類) 가사모도
をかざき 岡崎 愛知	Ea60 오가사기 Eb118 五家沙其(오가사기)
	G42 오가자기 H39 옥가작기

J190 五加沙其(오가사기) 倭類) 옥가사기

2) 「ジ」의 음주

ジ의 음주에서 주목할 점은 「而 시」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弘治 5年 『이로파』(1492)의 「せず 선수」처럼 앞 음절에 「レ」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ジ에 비음적 요소가 있었다는 확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ㄹ처럼 ジ에도 「시」으로 음주된 예가 보인다.

あじろ 網代	Bb4 安而老(안시로)	
いんどうじ 印通寺	Be4 因都溫而(인도온시)	
しんじやう 新城	Bd2 信昭于(신소우)	
みたじり 三田尻 山口	G14 미다지리	
えじり 江尻 静岡	Ea65 예지리	Eb128 藝之里(예지리)
	G55 여지리	H49 예지리
	J200 义之里(예지리)	倭類) 예시리
せいけんじ 清見寺 静岡	J201 世以見時(세이견시)	

3) 「ズ」의 음주

ズ는 다음의 1례가 있는데 「愁 수」로 기록되어 있다.

すずり 硯	F17 愁愁里(수수리)
-------	--------------

4) 「ゼ」의 음주

ゼ는 「Bb25 かもぜ」를 제외하면 모두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捷解新語의 음주를 포함하면 「△・ス・ス」등의 다양한 음주가 나타난다.

かもぜ 鴨居瀬	Bb25 可門諸(가문제) 倭類) 가모세	Eb81 加毛世(가모세)
びぜん 備前 岡山	D38 비전 捷-原/改) 비센 倭類) 뻬센	G25 미전노구니 捷-重) 비센
ぶぜん 豊前 福岡・大分	D52 부전 捷-原/改) 뻬센	捷-重) 뻬센
ちくぜん 筑前 福岡	D50 지구전 J158 只口前(지구전) 捷-原/改) 지구센	G10 지구전구니 捷-重/倭類) 지구센
ゑちぜん 越前 福井	D23 예지전	捷-原/改/重) 예지센

5) 「ヅ」의 음주

1예뿐인데 「而 시」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ジ」를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もぞら

Bd11 毛而羅(모시라)

6) 일본 기행 자료 및 일본어 학습서의 ㅈ행

이상, ㅈ행의 음주를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15세기의 문헌에는 비음성이 나타나지만 『D 看羊錄』부터는 비음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ㅈ행의 비음적 요소가 15세기에는 있었지만 17세기에는 소실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일본 기행 자료에 나타나는 ㅈ행의 음주

	A 1420 老松堂日 本行錄	B 1471 海東諸國記	Ca 1617 扶桑錄	Cb 1617 東槎日記	D 1656 看羊錄	Ea 1655 扶桑錄	Eb 1655 聞見別錄	F 1719 海槎錄	G 1719 扶桑錄	H 1764 癸未隨 槎錄	J 1763 東槎日記
ㅈ	ㄴ-사	ㄴ-사/ㄴ-좌	--	--	--	사	사	--	자	자	자/사
ㅊ	--	ㄴ-시	--	--	--	지	지	--	지	지	지
ㅌ	--	--	--	--	--	--	--	수	--	--	--
ㅍ	--	ㄴ-계	--	--	져	--	세	--	져	져	져
ㅍ	--	시(?)	--	--	--	--	--	--	--	--	--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ㅈ행의 음주에 「시」도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Ea와 Eb에서는 ㅈ·ㅌ를 모두 「사」로 음주한 예가 보이는데 첩해신어에도 이러한 예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ㅈ행의 유성성(有聲性)이 약해진(혹은 없어진) 어형을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본어 학습서의 음주표인데 17-18세기에 ㅈ행의 비음성이 대부분 소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첩해신어 원간본에서는 주로 부정의 「-즈」의 음주에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지만 개수분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어 학습서에도 ㅈ행을 「시」으로 음주한 예가 상당수 보인다.

<표 8> 일본어 학습서의 ザ행의 음주

		語頭					非語頭					
		レ-△	レ- ス	△	ズ	ス	レ- △	レ-ズ	レ-ス	△	ズ	ス
ザ	捷-原	-	-	4	-	-	6	-	-	283	-	10
	捷-改	-	-	5	-	-	-	-	410	-	8	
	捷-重	-	-	5	-	-	-	-	331	-	8	
	方言集釋	-	-	-	3	2	-	4	-	27	26	
ジ	捷-原	-	-	54	-	2	6	-	164	-	31	
	捷-改	-	-	52	-	6	-	-	263	-	24	
	捷-重	-	-	52	-	-	-	-	210	-	3	
	方言集釋	-	-	-	1	-	-	8	-	10	38	
ズ	捷-原	-	-	-	-	6	55	-	17	1	-	10
	捷-改	-	-	5	-	3	-	-	22	-	6	
	捷-重	-	-	5	-	-	-	-	55	-	1	
	方言集釋	-	-	-	-	-	-	-	9	-	7	26
ゼ	捷-原	-	-	13	-	1	-	-	49	-	1	
	捷-改	-	-	9	-	-	-	-	47	-	7	
	捷-重	-	-	7	-	-	-	-	47	-	-	
	方言集釋	-	-	-	2	1	-	-	-	20	3	
ゾ	捷-原	-	-	71	-	-	8	-	1	13	-	1
	捷-改	-	-	12	-	-	-	-	26	-	-	
	捷-重	-	-	97	-	-	-	-	28	-	-	
	方言集釋	-	-	-	-	6	-	4	-	10	9	

참고로 후쿠시마구니미치(福島邦道 1995:188-189)는 앞 절에서 언급한 『聖人・女聖人の輝き生涯』(1591)에서 ザ행의 표기에 비음적 요소가 나타나는 예가 상당히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제시된 예는 대부분 「ず」이다. 이는 앞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첩해신어 원간본에서도 「ず」를 「レ-△」로 음주한 예가 많은 점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제시된 예의 일부이다.

māzu · māzu 先ず sanzucari さずかり
 anzuque あずけ

4.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일본 기행 자료 및 일본어 학습서에 나타나는 탁음의 음주를 분석하여 탁음의 비음적 요소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특히 시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본어 학습서와 달리 일본 기행 자료의 지명에 대한 음주는 같은 자음이라도 후속 모음에 따라 변화의 시기가 달랐을 가능성 등 개별음의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일본 기행 자료에 나타나는 탁음의 음주를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다. o는 비음성이 있음을(단, o로 표시된 문헌에도 비음성이 나타나지 않은 예가 일부 있을 수 있다), x는 비음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는 예는 적지만 비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문헌을 나타낸다.

<표 9> 일본 기행 자료에 나타나는 탁음의 비음성

	A 1420 老松堂日本行録	B 1471 海東諸国記	Ca 1617 扶桑録	Cb 1617 東槎日記	D 1656 看羊録	Ea 1655 扶桑録	Eb 1655 聞見別録	F 1719 海槎録	G 1719 扶桑録	H 1764 癸未隨槎録	J 1763 東槎日記
カ行	o	o	o	--	o	o	o	o	o	o	o
タ行	o	o	--	--	o	o	o	x	x	x	x
パ行	o	o	--	△	x	x	x	x	x	x	x
ザ行	o	o	--	--	x	x	x	x	x	x	x

이 표는 탁음의 비음성이 쇠퇴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며 일본어 학습서의 탁음 음주의 통계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カ행」은 18세기에 비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 (2) 「タ행」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비음적 요소가 소실되었다.
- (3) 「パ·ザ행」의 경우는 15세기까지는 비음적 요소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16세기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해 17세기에는 일부의 어휘를 제외하고는 비음적 요소가 소실되었다.
- (4) 「パ행」과 「ザ행」 중 어느 쪽의 비음적 요소가 먼저 소실되었는지는 일본 기행 자료의 분석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지만, 크리스천 자료(福島邦道 1995)등을 모두 고려하면 거의 같은 시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1] 李元植, “朝鮮通信使に随行した倭学訳官について”, *朝鮮學報*, 111호, pp.53-117, 1984.
- [2] 趙垺熙,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音声・音韻の研究*, J&C, 2001.
- [3] 陳南沢, “日本語における子音の変遷について- 朝鮮資料の音注を中心に -”, *東京大学言語学論集*, 21호, pp.17-102, 2002.
- [4] 陳南沢,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と韓国語の音韻史研究”, *東京大学博士学位論文*, 2003a.
- [5] 진남택, “15-18세기 일본어에 있어서 청음과 탁음의 음운론적 대립에 관해서 -일본자료를 이용하여-”, *언어학*, 37호, pp.303-327, 2003b.

- [6] 홍운표 외, *17세기국어사전*, 태학사, 1995.
- [7] 大友信一, “捷解新語にみられる濁音表記”, *言語研究*, 30호, pp.90-91, 1956.
- [8] 大友信一, “捷解新語による国語音の研究”, *文化*, 11권, 4호, pp.16-34, 1957.
- [9] 岡野信子, “壹岐・対馬の方言”, *講座方言学9-九州地方の方言-*, pp.150-160, 1983.
- [10] 河野六郎,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1968.
- [11] 土井忠生編, *日本大文典*, 三省堂, 1955.
- [12] 中村栄孝, “朝鮮初期の文献に見える日本の地名”, *日鮮関係史の研究(上)*, 東京: 吉川弘文館, pp.381-442, 1965.
- [13] 橋本進吉, “国語に於ける鼻母音”, *方言*, 2권, 1호, 橋本進吉著作集第(1950) 4冊에 재수록, pp.1-9, 1932.
- [14] 服部四郎, “音韻論(3)”, *言語学の方法*, 東京: 岩波書店, 1957.
- [15] 浜田敦, “海東諸国記に記録された日本の地名などについて”, *人文研究*, 5권, 4호, *国語史の諸問題(1986)*에 재수록, 大阪: 和泉書院, pp.446-477, 1954.
- [16] 浜田敦, “ガ行子音”, *国語国文*, 25권, 2호, pp.25-36, 1956.
- [17] 浜田敦, “海行摺載に散見する日本語集”, *神田博士還暦記念書誌学論集*, 1957.
- [18] 浜田敦, “清濁”, *国語国文*, 40권, 2호, *続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에 재수록, pp.126-140, 1971.
- [19] 福島邦道, *続タキリシタン資料と国語研究*, 東京: 笠間書院, 1995.
- [20] 森田武, “捷解新語解題”, *国語国文*, 21권, 4호, *三本対照捷解新語釈文(1973)*에 재수록, 京都大学国文学会, pp.209-272, 1957.
- [21] 安田章, “重刊改修捷解新語解題”, *三本対照捷解新語釈文(1973)*에 재수록, 京都大学国文学会, pp.273-337, 1964.
- [22] 安田章, “方言集釈の日本語表記”, *国語国文*, 48권, 1호, *朝鮮資料と中世国語(1980)*에 재수록, pp.249-319, 1979.
- [23] Seung-Bog Cho, *A Phonological Study of Early Modern Japanese on the Basis of the Korean Source-Materials*, Vol. I, Stokholm: Almqvist & Wiksell, 1970a.
- [24] Seung-Bog Cho, *A Phonological Study of Early Modern Japanese on the Basis of the Korean Source-Materials*, Vol. II, Stokholm: Almqvist & Wiksell, 1970b.

접수일자: 2003년 10월 27일

게재결정: 2003년 12월 6일

▶ 진남택(Nam-Taek Jin)

주소: 277-0066 日本 千葉県柏市光ヶ丘2丁目1番1号 麗沢大学

소속: 麗沢大学 대학원언어교육연구과 객원연구원 / 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특별연구원

전화: +81-4-7173-3334

E-mail: ntjin21@empal.com